# 효성, 미국서 민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참석… 정·재·학계 등 440여명 참여

## 조현상 사장 "한미 FTA 폐기 부당"…부시 전대통령 "윈윈"

조현상 효성그룹 사장이 미국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에 참석해 한미 양국간 민간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효성그룹은 조 사장이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케니지 록펠러재단 상속자 등과 만나 한미 양국간 민간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일 밝혔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한미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1957년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의 제안으로 미국의 저명 인사들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한미 양국의 정책과 기업, 경제, 교육, 예술 그리고 영화에 관해 전문성 있고 편견 없는 토론과 연구를 수행하고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부시 전 대통령 외에도 최태원 SK 회장 등 한미 양국의 정계, 재계, 학계 등 인사 440여명이 참석했다.

조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핵 사태라는 위협 상황 속에서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동행을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주장과 관련 "자유무역은 국가간 지켜져야할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민간경제 차원에서도 한미 FTA 폐기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의 부친인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은 한국 경제계 수장으로서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한편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코러스(KORUS·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칭하는 단어)의 폐기는 나쁜 정책이며 말도 안 되는 일(Withdrawing from KORUS is a bad policy and doesn't make sense)"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자유무역은 매우 중요하다"고 운을 뗀 뒤 농업 종사자나 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는 힘든 상황도 있지만 교역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양측에 윈윈이라고 언급했다. 즉 한미 FTA를 폐기한다는 건 양측의 이익을 저해하는 '나쁜 정책'이라는 얘기다.

2001년부터 2009년 1월까지 43대 미 대통령을 역임한 그는 한미 FTA 협상의 '산파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대통령 임기 중인 2006년 6월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됐고 이듬해인 2007년 4월 한미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조현상(왼쪽) 효성그룹 사장이 지난 28일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기념식에 앞서 케니지 록펠러재단 상속자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 〈효성 제공〉

#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일자리 살릴 것"

## 산업銀 기자간담회…만기 채권 연말까지 상환 연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정부의 국정 방향에 발맞춰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금호타이어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적인 판단임을 전제하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타이어 재인수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본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금호타이어의 향후 처리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날 자율협약을 맺고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연말까지 상환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외부 전문기관이 경영 실사를 해 중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 조기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연말까지 돌발상황이 없는 한 금호타이어에 유동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중국법인 처리 문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적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하겠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얼마나 협조하고 정상화 노력에 동참하느냐에 일자리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용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많이 할수록 인력 구조조정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 방안이 나와야 신규자금 투입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며 "신규자금이 필요하다면 채권단과 협의해서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자금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중은행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신규자금 투입에 크게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강력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8일자로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 회장은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12일 제출한 금호타이어 자구안에 대한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의 최종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박삼구, 이한섭 대표이사가 물러남에 따라 이날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경영진 교체를 단행했다. 새 대표이사로 손봉영 G.생산본부 부사장이 선임됐다. /김대성기자 bigkim@

# 광주국세청, 자매결연 무등시장서 '추석 장보기'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은항)은 대한민국 쇼핑관광축제'Korea Sale FESTA'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8일 자매결연 전통시장인 '무등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은항 청장은 무등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시장 내 국밥 집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광주지방국세청 간부·직원들과 함께 시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격려했다. 또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여 과일, 생필품, 직원 간식 등을 일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물품 구매를 실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응항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8일 온누리상품권으로 무등시장에서 물품 구매를 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 한전, 평창 동계올림픽 전력설비 준공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조직위원회와 함께 지난 2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장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전력설비 적기 건설을 기념하는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조환익 한전 사장을 비롯하여 이희범 올림픽 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원도 국회의원 및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전은 동계올림픽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2015년부터 송전 및 배전설비를 신·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림픽 경기장 및 주요건물의 구내 임시배전설비 공사를 함께 추진하여 전력인프라를 구축 완료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올림픽 전력설비 건설을 전담하는 '올림픽시설 T/F'를 조직하였고, 조직위원회 및 IOC 에너지 전문가와 정기적인 리뷰 회의를 통해 국제 올림픽 기준에 맞는 전력공급 설비를 구축했다.

한편 이날 전력설비 준공식과 함께 올림픽 기간 무결점 전력공급 및 행사지원을 담당할 올림픽 조직위원회 내 '올림픽 전력본부' 조직신설에 따른 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

올림픽 전력본부는 지속적으로 올림픽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전력지원실과 올림픽지원실로 구성되어 올림픽 이전부터 패럴림픽 종료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전력설비 준공식 및 전력본부 발대식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대회가 역대 최고의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국격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로또복권** (제774회)

| 당첨번호 | | | | | | 2등보너스 숫자 |
|---|---|---|---|---|---|---|
| 12 | 15 | 18 | 28 | 34 | 42 | 9 |

| 등 위 | | 당첨금(원) | 당첨자수 |
|---|---|---|---|
| 1 | 6개 숫자일치 | 1,709,721,512 | 11 |
| 2 |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 52,241,491 | 60 |
| 3 | 5개 숫자일치 | 1,602,500 | 1,956 |
| 4 | 4개 숫자일치 | 50,000 | 101,524 |
| 5 | 3개 숫자일치 | 5,000 | 1,704,279 |

# 박삼구 회장 '모태기업' 금호고속, 홀딩스와 합병

금호홀딩스는 제이앤케이제삼차(주)와 금호고속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금호홀딩스는 제이앤케이제삼차(주)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제이앤케이제삼차(주)가 금호고속의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어 합병 비율은 1 대 0 대 0이다.

금호홀딩스는 존속하고 제이앤케이제삼차(주)와 금호고속은 소멸한다.

이번 합병을 계기로 금호홀딩스는 연간 6000억원의 매출 및 800억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세전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게 되었으며,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도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이번 합병에 대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면서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1월 24일이다. /김대성기자 bigkim@